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노동본부 보도자료

문의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노동본부 성명>

택배 5사, 6월 3일 휴무일 지정 환영!

“택배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요구에 응답
‘모든 시민의 투표권 보장 실현’ 의 한걸음

CJ대한통운·쿠팡·한진·롯데·로젠 등 5개 주요 택배사가 대선일인 6월 3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간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쿠팡이 주간배송 중단을 결정하며, 빅5 택배사가 모두 ‘택배 노동자 투표권 보장’에 동참한 것이다. 택배사들의 용기와 결단에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를 표한다.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 노동자들은 원청인 택배회사에 종속돼 일함에도 형식상 자영업자에 속해 기본적인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택배 노동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참정권은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와 택배사에 투표권 보장을 촉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역시 양대 노총 택배 노동자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택배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습니다” 챌린지를 통해 정치권과 노동

현장에 문제인식 공유와 공감을 확산시켰다. 이번 택배사의 결정은 이 같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참정권 보장이라는 기본권 확산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노동시장 분절과 고용형태 다변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등 참정권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택적 적용은 있을 수 없다.

투표권 보장은 단순한 권리 행사 이상의 의미이며,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번 사회적 요구와 택배사의 결단을 시작으로 참정권 보장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한다.

2025. 05 24.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본부